

아시아의 環境變化와 韓半島

中嶋 嶺雄 <東京大 교수>

亞細亞政策研究院 제3회 韓·日관계 세미나 主題論文

1. 亞細亞의 激動과 韓半島

소련,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大小의 「霸權主義」 반대를 부르짖어온 中央은 지난 2월 7일에 베트남을 勇猛하게 있다는 말대로 드디어 중공군을 베트남 영내로 대거 침공시켰다. 그리하여 규박해 있었던 인도차이나 정세는 갑자기 새로운 심각한 단계로 들어갔고, 작년 11월 초순에 체결된 蘇越조약은 배경으로 한 소련은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對베트남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냉전이라고도 보여지는 아시아의 긴장은 더 한층 증가되었다.

당초 중공의 對越침공작전에서는 地政學的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한 중·소 전쟁의 위험이라는 점으로 보나, 스스로 그 한계가 있었고, 국제여론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중공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拘束을 받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은 아시아의 격동속에서, 또 하나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韓半島라는 것은 말한 나위도 없다. 이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는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과 국제정치의 서부시스템이며, 또한 중공을 에워싼 서로 대칭적인 주변지역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 중공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天秤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개 한쪽이 動亂에 처해있으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안정해 있었다는 경위를 거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상 및 地政學上的의 숙명적構圖에 비추어 보면, 인도차이나의 현재와 같은 격동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韓半島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놓여 있게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시기에, 즉 중공의 對베트남군사행동이 개시된 바로 그날인 지난 2월

17일에 남북한 대표가 판문점에서 오랜만에 재회했다는 것은 선로인상적인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역사적인 美中 共 邦교수립으로 말미암아 과거 韓半島에서 交戰을 벌인 美中 邦교국이 화해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韓國 日本 美國」對北 韓 中 邦「소련」이라는 동북아시아의 독립의 구도에 적어도 현단계로서는 충만한 효율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볼때 소위 말하는 韓半島문제에 이제까지의 국제정치문제로부터 南北韓 스스로의 민족문제로 그레이드 다뤄지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카터대통령의 주한 미군철수정책이나 최근의 鄧小平총공부수상의 「韓半島에는 긴장이 없다」라는 일련의 발언은 주변관계대국이 韓半島문제물어제까지와 국제문제에 배설로부터 韓民族내부의 「내정문제」로 정치전환을 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亞細亞정책연구원(원장 閔寬植)이 주최한 제3회 韓·日관계 세미나가 지난 4일, 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安全保障」등 3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다움의 끝은 「安全保障」분야에서 東京大學 나카지마(中嶋嶺雄)教授가 발표한 주제 논문이다.

<편집자 注>



지난 1월 19일 朴正熙대통령이 「南北 邦교자간의 무조건 대화제」의 제안을 계기로 하여, 활발한 南北韓의 대화 제개는 결국 北韓측의 배신에 의해 당면성과는 지를 수 없었다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韓半島문제의 「國內化」라는 범주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관계대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中蘇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이 조약을 둘러싸고는 스탈린과 미건조주의 해체는 커녕, 유럽 및 아시아의 毛澤東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결국 中蘇관계의 진전全域을 포함하는 더 한층의, 그로브한 신술을 감파하지 못하고 말았다. 즉 미국 새로운 反미상방(00)조(조)으로서의 개은 포립상 신전원 中蘇의 원통같은 단마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결의 신화와 눈이 팔다 「중공의 상신」,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디나아가는 「중공토토화와상신」이라고 막은 1975년의 소위말하는 新太平洋단정하고 염미귀 한국전쟁을 거쳐 越南(북베트남)에서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바 전쟁의 이르기까지 美中共대결의 도식와 같이 유럽에서 인지역에 대해서 美蘇관계 「간장문화」 전략을 행사하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따라서 유동화한 인도차이나정세를 보아도 79년 초의 프들레함라는 中蘇대립의 하나의 부산물인 동시에, 美中共교수투위의 영합의 하나였다고 말한 수 있을 것이다.

플로트정권의 배후에 中共이 있고, 캄보디아 阻國유일전선의 越남페로베트답이 있으며 또한 소련의 버티고 있었던 사실은 오늘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도차이나정세의 격동이 美中共교정상의 對한 소련의 물개의 일

변화를 초래케 한 것이지만, 이렇게 해
서 그야말로 양타체제가 중언하더라지
금씩사는 크게 선화하고 英中共은 전
바꾼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英日中共의 「태평양회담체결후」 불강
화하려고 하는 2원적인 세계전략으로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英中共교가
南北韓의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기운을
가져다 주었고 민족내부의 문제로서 韓

고한 절함을 이루어 놓으려 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역사적 계도물거였던 美中共의 국교가 현재 수립되었는 아시안의 긴장 완화와 다른 한쪽에서

처서 焚中共교가 수립된 오늘날, 아시아의 국제환경은 70년대초의 焚中共 전진시기와는 더 한층 크게 다른 상황 하에 놓여 있으며, 그야말로 새로운 냉전으로서의 「反目的戰爭」(Cool War)이 바로바로 전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메도, 그 사례를 가장완화와 범주에서만 전방향이던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지고 있다. 이 정도로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대국간의 전략적추진과 환경의 하역 유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의 焚中共교수립은 그 자체로서는 焚中共간의 역사적인 현안의 처리

는 韓半島정세 안정화예로의 움직임이란 兩面の작용으로 인해 아시아의 국제관 경을 크게 뒤흔들어 놓게 된 것이다.

3. 中蘇友好同盟條約의廢棄와 中蘇관계

지난 4월11일은 中蘇友好同盟條約이

1970년초의 중공의 정국은 일
반적으로는 「강장완화」의
방향에서 자주되고, 냉전구조가
이미 무너져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서
국제정치의新局面에 걸맞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中國에서 經濟
發展(經濟發展) 조항이
한마디씩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 있어서의 中蘇關係의 경과와 더 이후에 있어서의 中蘇關係의 경과와 더	1978년 日中共同평화우호조약 (1978년 日中共同평화우호조약)	의나하면 첫째 1950년에 맺어진
미국과의 8년)의 중대한 나환으로 中蘇우호동맹조약의 시초는 美蘇	8년)의 중대한 나환으로 中蘇우호동맹조약의 시초는 美蘇	
조약(1978년)의 성립을 계기로 3개국의 안락형질 (밀안)에 의거한	조약(1978년)의 성립을 계기로 3개국의 안락형질 (밀안)에 의거한	

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極限關係에 놓인 蘇·中共 危機속에 好轉될수도 「韓半島」國際問題에서 韓民族문제로 轉換 움직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4. 韓半島의 「地政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전쟁에 지면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만약 한국의 합본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에 용기를 얻어, 미국해안의 더 가까운 諸國까지 유린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불법공격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UN의 기초와 원칙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 싸운 것이다. 즉 미국 스스로의 국익을 위하여, 더 나가는 UN의 기초와 원칙을 위하여 싸운 것이며, 본래가 韓半島의 방위와 韓國 그 자체를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다. 한편 中蘇양국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中蘇양국도 自國의 존립과 그 이해를 위하여, 나가서는 中蘇전쟁

韓半島는 介入하면 서로 損害보는 「中蘇緩衝지대」로

의 잠재적인 일관(一貫)으로서의 地理學的 위치

에 있어서 한국전쟁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한국전쟁의 또다른 2중

의 비극적성을 韓民族側에서는 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소련도 결국은 중국대륙본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했다. 미국이 중국본토에서 개

입을 피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었으며, 스탈린도 中共和 소련의 「중간지대」의

공방에만 주안점이 있었으며, 중국본토는 어떠한 도리가 없었다. 전후아시아에

있어서의 美蘇양국의 치열한 냉전에

도 불구하고 美蘇양국이 중국본토에서 직접 대결하는 일은 결국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代價가 전부 韓半島에波及해왔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생

각일과,

이렇게 보면 결국 중국은 미국에도 그

리고 소련에도畏敬한만한 유구한 문명

의 「중심지역」과 韓半島라는 문명의 「주

변지역」과의 차이가 여기에 뚜렷이浮

체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문제는 전후아시아에서 인도차이나半島

라는 中國大陸에서 본다면 또 다른 한쪽

에 있는 문명의 「주변지역」이 또한차

라 전란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어갔

다는 사실과 더불어, 극히 상징적인 문

명사적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필경 유럽을 주요무대로

참고 반생한 전후세계의 냉전은, 아시아

에서 열전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最大

의 중국의 目標은 언제나 中共에 걸려있

은면서도 中共이라는 문명의 「중심지역」

은 이내 열전의 무대가 되지 않고 韓半島와 그리고 인도차이나半島라 부르는 中共을 중심으로한 두개의 「주변지역」이 무력개입의 직접적인 대상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 방문했었다. 그날 낮이 좀 지나 나

는 이 「성역」의 좀 높다란 언덕에서서

南北군사문제선을 따라 펼쳐지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전원풍경을 실증도 안내고

쳐다 보고 있었다. 초여름이라고 하기

에는 아직 따운 계절인데도 대북성의 강

렬한 다위배운에 여기에 오기전 수일간

을 지냈던 동남아시아의 기후가 오히려

지내기 좋을 정도였다. 그러나 시야에

들어오는 눈과 소나무가 무성한 푸른 구

릉, 그리고 아카시아의 흰꽃은 이 땅과

일본과의 가까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논아래 개울에 걸린 다리는 「불아오지

않는다」라고 휴전위원회의 UN군령

사가 설명한다. 지난날 한국전쟁이 끝나

고 이 다리를 통해서 오고 간 남북으로

교환의 극적인 신화를 유성화에서 본 나

의 어릴때 기억이 또다시 뇌리를 스친다. 그 기억은 조금전에 들어간 휴전위원회의 남북회담베이징의 강렬한 인상과 겹쳐 버린다. 그리고 여기에 板門店の 전원풍경은 너무나도 한가로와 몇마리의 배로가 남과 북사이를 자유롭게 비상하는 모습은, 도리어 문제가 무리진다는 것을 오히려 소상하고 있는 듯했다. 오늘이 시집에서는 아무런 바람이 없는 하다가 마다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실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 언덕에서 보이는 동쪽은 북쪽의 「선전촌」이라고 하며, 배후에는 남쪽의 「자유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의 UN군 병사(美兵)나 韓國軍병사의 좁긴장한

것장은 표정에 비해서, 무한군 병사의

연율이 무한한 자취를 이끈다.

군사문제선을 따라 韓半島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1천2백92개의 표지가 서 있

다고 하는데 흥미있는 것은 이 표지의

南쪽을 향하면 韓國語와 英語로, 北을

향하면 北을 韓國語와 中國語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표지 쓰는 법 하

나만을 보아도 韓國戰爭이 국제적내전이

었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

무장지대인구의 「자유」의 다리」는 임진

강에 걸쳐 있어서, 일반인들은 이 다리

이구까지 밖에는 오지 못하지만, 임진강

에서는 美軍군방사도 대량으로 희생당하

여 이 江물을 피로 물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만만하나 쉬웠던 것이

아니었다. 그 유혈의 비참함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南北韓의 증오와 원한의 씨앗이 되었다. 특히 북의 무력침략의 격렬함과 인사적절방기의 공포정치 때문

에 南의 민중의 심리가 일파나 피폐적이

되었으며, 나가서는 더한층 뿌리깊은

적의를 증가시켰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사람들에게는 상상조

차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또한 38도선을 넘어서 몇 번인가 被我

攻守의 자리가 뒤바뀐 한국전쟁의 총적

드러내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전쟁으

로서 수많은 역사적 장면을 부각했던 것

이다. 양타현정 이후의 스탈린의 극동전

략, 그리고 백이대원수의 열광과 비극,

彭德懷 그리고 林彪지도하의 중국의용군

의 참전: 이것을 가운데 이면 하나를 보

아도 그것은 현대사의 중요한 한 획이다.

그밖에 한국전쟁의 국제배경을 짚어준 이들 지도자들은 이 전쟁에 힘을 다하여 협력하였으면서도 우스꽝스럽게도 누구 하나 영광보다는 비극의 말로가 가득하고 있었다. 스탈린 비판, 백아디해인, 彭德懷 실각, 林彪이변...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中共은 한국전쟁에서의 소련의 역할을 호되게 비난하고 「소련은 상업의 商人이다. 中共이 한국전쟁에의 용군을 파견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소련은 배후에서 병기만을 팔아 먹었다. 병기의 대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아 먹었다」고 때때로 공격하고 있다.

나는 板門店의 늑다란 언덕에 서서, 머릿속을 스치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국제사실에 내마음이 자꾸만 머물러 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또한 나는 이 언덕에서서, 지난날 여제인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속에서 유유히 난동가의 흐름세를 내려다 보고 釜山교두보에까지 迫進한 북쪽의 진격을 막으려고 버린 나동장작전의 처참한 양상을 생각해 보았었는데, 지금 그 생각을 다시 되새기며, 이 난동가의 처참은 백아디의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미악마 기적으로 돌아간 사실과 더불어 그 仁川灣의 해변풍경을 또한 생각해 보았다. 말한 나위도 없이 나의 이같은 각오는 전부가 다, 내가 지금 서있는 38도선 그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일본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6.25는 中國서 對決된 美·蘇내전의 代價... 美·中·蘇단결 神話에 속아



그러나 주로 中國을 대상으로한 아시아의 동서냉전은 끝내는, 中國을 전쟁터로 삼지 않았고, 韓半島에서 열전화하게 되었다. 이 점에 韓半島문제의 원인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은 한국전쟁에 관하여, 그것이 스탈린의 아시아 정책과 中國정책과 얽혀 있는 국제전략의 일환이라고 그 위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은 동시에 韓半島내부의 상황을 촉매로 한 「현명을 위한 내전」으로서 발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에 이제까지 나는 진착해 왔다.

또한 中共혁명을 성취하고 얼마되지 않은 아직 나그네 정열에 충만해 있는 中共이 이 스탈린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이었으면서도 단순히 중공자신의 조국방위라는 절박한 상황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라는 전신한 사명관에 입각하여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탈린전략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 만

사 어찌하여 韓半島에서 일어나야만 했는 「동조항」은 中國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나. 그 전부를 스탈린의 책임으로 돌리고, 中國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면서 좌익의 전략이라고 자주하는 선에 이르러 기까지, 한국전쟁의 개전에 관한 여러 견해는 나옴대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해적절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명백하지 않다. 제2차대전후의 아시아의 국제정치재편과정은 소위 말하는 양타체제로서 그 위치를 규정할 수 있으나, 美·英·蘇의 양대밀약으로 알려져 있는 「국

부더 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주로 中國을 대상으로한 아시아의 동서냉전은 끝내는, 中國을 전쟁터로 삼지 않았고, 韓半島에서 열전화하게 되었다. 이 점에 韓半島문제의 원인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은 한국전쟁에 관하여, 그것이 스탈린의 아시아 정책과 中國정책과 얽혀 있는 국제전략의 일환이라고 그 위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은 동시에 韓半島내부의 상황을 촉매로 한 「현명을 위한 내전」으로서 발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에 이제까지 나는 진착해 왔다. 또한 中共혁명을 성취하고 얼마되지 않은 아직 나그네 정열에 충만해 있는 中共이 이 스탈린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이었으면서도 단순히 중공자신의 조국방위라는 절박한 상황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라는 전신한 사명관에 입각하여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탈린전략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 만

를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더 공적인
심한 것이 되어버렸다.

요컨대 일본측의 대응에는 너무나 냉
정성을 결여한 행동이 눈에 띄고, 독선
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나위가
없는 게 아닌가 싶다.

日本사람은 일반적으로 한국문제에 있
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피해 지나쳐버리
려고 하면서도, 일단 한국문제가 나오
기만하면 이에 대해서는 中共 문제에서
는 결코 보인적이 없는 비합리적인 언동으
로 나오기가 쉽다. 부지불식중에 「상자
(大國)에게는 비굴하게, 「약자(中小國)」
에게는 강경하게 대한다는 패턴의 지배
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의 뿌리는
더욱더 깊은 것이 아닐까 하겠다.

日本사람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너무나
냉정하고, 오늘날의 이태문제는 아시아의
공포와 비참배분이며, 이것에 비극적인
淵源이 존재한다는 한반도의 부지불식
한 실상을 인식하고, 한국이 놓여진 당면한 국
제정치상의 위치와 韓國內政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아가서는 이와 같
은 한국의 대응에 자기 위한 태도와 방
법 (그것을 때나라고 불러도 좋다)을 냉
정 침착하게 모색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길을 확실히 찾아 걸어야만
현정권에 대해서도, 韓國人에 대해서도
일본측 논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때때로
비논리적인 心情인 때가 있는 韓國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물 논리적, 이론적인

72년 南北회담이후 「서로의 크기」把握 高潮된 경쟁의 危機의 심각성



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韓日간의
상호 이해는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시
각되는 것이며, 한국사람을 빗으로 삼기
위해서는 日本사람자가 빗을 삼을 수 있
는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된다. 韓日관
계란 이와 같은 이해들이 수반하는 반면
이것이 역시 우리 日本사람에게 있어서

의 고유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환경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오늘
날의 정세하에 미국도, 또한 소련도 이미
세계의 초대국으로서 자국의 운명을 맹
목적이고 결사적인 선택에 맡겨 버릴 수
는 없게 되어 있으며, 毛澤東이후의 중
공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
라서 한반도의 위기는, 돌발적인 군
사행동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안전보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점진적으로 굳혀가야만 비로소 외제적인
면에서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南北韓내부에 존재한다.

1972년 7월의 획기적인 南北韓 회
담에 의하여 南北雙方이 스스로의 눈으
로 상대방의 존재의 크기를 파악한 것
이, 도리어 오늘날의 南北間의 격렬한
경쟁의식과 「緊張」을 높여 놓았다고 보
여진다. 그리고 「危機」의 內在性이야 말
로 이것때문에 韓半島문제의 진정한 어
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내재성이 있는 한
韓半島의 무거운 현실은 당분간 더 지속
돼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日本사람
에 있어서의 고유의 과제로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전보장상의 고려에서도,
韓半島문제가 계속하여 아시아의 국제관
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 과제의 하나라
는 데에는 여전히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한
 것이다. ■

그렇므로 中共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공
방에서 생겨난 여파가 다쳐의 韓半島와
그 민족에 비극을 초래케한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中共을 중심으로
한 韓半島와는 대척적인 인도차이나半
島에 아시아네틱의 정파로서의 또 하나의
열전이 또다시 國際的內戰으로서 발생
한 근원적인 의미도 해명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상것은 파문지바문을 풀내고
서울로 돌아와 그날 곧바로 김포공항에
서 급히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이 바쁜
하룻동안에 나는 38도선이 어떻게 되
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의미의
무거움과 크기를 더욱 더느낄 수 있었
다.

6.25서 희생한 中共, “蘇는殺人무기판商人” 비난

우리 日大사략에 의하면 38도선은 이와 같
이 가장 중요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38도선이 치명하게 파괴가 부르고
있을 때에도 왜전주(제2차대전)의 뒤에
포획되었던 우리 日本은 어떻게 되었
국제정치의 하반도에서 어떻게 되었
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어보면 우리 日本은 어떻게 되었
을지 모르겠다.

우리 日本은 어떻게 되었
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어보면 우리 日本은 어떻게 되었
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어보면 우리 日本은 어떻게 되었
을지 모르겠다.

내가 실은 생각이 나에게는 자꾸만 된다.
韓國의 정치는 世代의 가담 바음을 넘어 놓
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같은 논쟁이 남는 것이 바로 거기
에 대한 증거인 것 같은 생각이 된다.
韓國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가한 대인칭주의와 과민할 만류의 의
해자의식(또는 과도한 소의감)과 더불어
이 국제교류라는 무화교류라고 하는
제후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여겨지는 韓日 양국민의 심리적 차이의
무리는 전후아시아의 국제정치가 韓國에
가져다준 禍根 그 자체에 유래하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中共
을 끼고 인도차이나半島와 朝鮮半島가
시아를 생각하고 있다. 韓國을 거의 觀
野속에 넣지 않고서 아시아를 생각하고
타가와 總督府에서나 도 포함된 대개의
日本사람들의 아시아의식이 존재해 왔다
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리고 北京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中國문화의 압도
적인 충만함과 奈良 또는 京都에서 느끼
는 日本문화의 세련된 精緻와 아시아에
서 오늘날 廣州의 문화유적으로 대표되
는 韓半島의 문화가 보며주는 조용한 優
美함을 어떤 위치에 놓느냐라는 문화적
시선도 이것은 충분히 전해져 있는 것 같
지 않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나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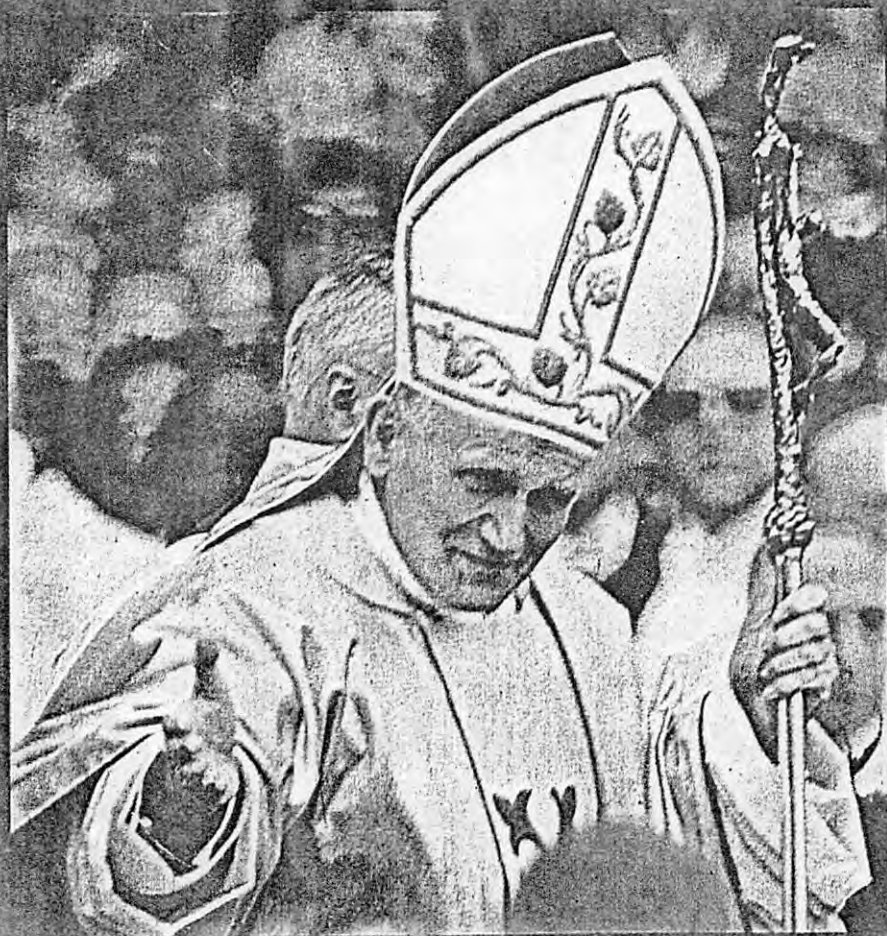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심리적 차이의 문
제가 하나의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서는
국제관계의 심리라는 점에서나 日중공

週刊朝鮮

1968년 12월 23일 제3종 우편물 인가 국유철도특별취급증인 제4

1979. 6. 17 No. 542



인터뷰

社會正義 구현과 辯協

金泰清 변호사

프랑스 中 3 倫理教材 「集團生活」
아시아의 環境變化와 韓半島



유한김벌리

질어지는 緊縮의 感度.....邊龍植...8

시리즈 革命이란 무엇인가 ③.....32

圖科學의 주현圖

現代社會와 科學.....金永植...40

長篇연재 「노다지」 ⑭.....鮮于 輝...68

演劇時評 카프카文學의 劇化.....柳敏榮...76

圖주간圖室圖 「미디어의 理解」.....申一澈...62

近況		海外新刊		歷史의 카니벌		TV 하이라이트	
李鍾洙박사	79	차이코프스키	74	「歷史의 카니벌」	64	近況	59
修德寺대웅전 側壁	42	權力和 呪力の 野合	58	近況	59	李鍾洙박사	79
PLC 테러學校	44	營養과 健康	60	李鍾洙박사	79	修德寺대웅전 側壁	42
韓國國의 傳統美	47	恨脈怨流 - 金烈奎	60	李鍾洙박사	79	PLC 테러學校	44
現代繪圖의 觀覽	47	權力和 呪力の 野合	58	李鍾洙박사	79	韓國國의 傳統美	47
아우렐스키	47	營養과 健康	60	李鍾洙박사	79	現代繪圖의 觀覽	47
奈한잔의 思索 - 李良子	47	恨脈怨流 - 金烈奎	60	李鍾洙박사	79	아우렐스키	47

▲ 韓譯...66 ▲ 出版소식...67 ▲ 時事英語...78 ▲ 舞臺안내...78
▲ 經濟...82 ▲ 海外圖學...83 ▲ 週間動靜...84 ▲ 週間小史...86

아시아의 環境變化와 韓半島

中嶋嶺雄

48 14

新民黨全黨大會를 보고

張乙炳

10

프랑스中3 倫理教材 「集團生活」

社會正義구현과 協

5

오월의 提督 良質出版의 轉機

鄭鎮肅 3

目次

케네 스토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59)는 2인 교황으로서 사상 최초로 공산국가인 폴란드를 방문, 8일 동안 머물면서 폴란드와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신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세계관을 지닌 두 세계간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수백만 가톨릭 신도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모국을 순방하면서 공산국가들의 종교의 자유 제한에 도전,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국민에게 주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 메시지로서 커다란 충격파를 일으킨 교황은 폴란드 노동자들에게는 『종교를 포기하라는 無神論者들의 요구에 항거하라』고 호소했다. 1년 전만 해도 예기치 않았던 교황의 폴란드 방문은 바티칸당국의 對東歐國의 교에 하나의 개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反마르크스 冷戰을 동원 포기한 전임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의 결정을 확인한 것이다.

폴란드 訪問한 敎皇... 國家-宗教의 對話 이뤄질지

황이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이고, 가톨릭敎가 東歐國의 8천만 가톨릭 신도들을 위해 모색하는 自由를 여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승리의 의의가 감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50년대의 암흑기와 비교해 볼 때 東歐의 교회들은 지금 많은 줄기육을 향유하고 있으며, 차후 큰 진건의 교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티칸 당국은 교황의 이번 방문이 어떤 즉각적인 큰 성과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바티칸 판리들은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방문에서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돌아오거나 또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 당국에 「共產主義에 대한 神의 승리」라는 인상을 줄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방문이 對話를 갖겠다는 쌍방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황의 이번 방문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공산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리피카르」 誌에서

〈外誌에서〉